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스마트 그늘막' 폭염 대비 13개소 설치

정읍시가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13개소에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했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 그늘막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신대인역 앞 △수성동 주공아파트 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설치했다. 기존과 풍속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그늘막이 스스로 개폐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과 학생 등 보호자들이 횡단보도 대기 중에도 잠시나마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폭염 대응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매년 반복되는 폭염 상황 속에서 시민의 불편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그늘막 외에도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정읍세무서,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협약

고창군이 3일 고창읍 주민행복센터에서 정읍세무서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업무협약을 맺고 현관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송평근 정읍세무서장을 비롯하여도·군의원 및 관내 기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통합민원실은 사업자 등록 및 변경, 국세 제증명 발급 등 국세 민원과 지방세 제증명 발급 및 지방소득세 신고 등 지방세 민원을 한 곳에서 윈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읍세무서까지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전망이다.

고창읍 주민행복센터 2층에 위치한 통합민원실은 주 2회(화·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김대환 기자

'달빛 사랑숲' 감성 충전 명소로

정읍시, 정읍사공원 내 사랑·소원 테마 총 1.2km 산책로

한여름 밤, 달빛 아래 사랑을 속삭이고 소원을 빌 수 있는 숲길이 정읍에 펼쳐졌다. 정읍사 전설을 테마로 한 '달빛 사랑숲'이 감성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정읍사공원을 중심으로 조성된 이 숲길은 낮에는 자연의 싱그러움을, 밤에는 은은한 조명과 조형물이 어우러진 몽환적인 분위기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특히 사랑과 소원을 테마로 꾸며진 총 1.2km 산책로는 연인, 가족, 친구 등 누구나 함께 걷기 좋은 공간으로, 미디어아트와 조형물이 곳곳에 설치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QR코드를 통한 사진 전송, 체험형 미디어 콘텐츠 등 참여형 요소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어 관람객의 호응을 얻고 있다.



밤하늘을 수놓는 조명 아래에서 소원을 비는 순간은 오직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이다.

특히 올해는 '달사 100(달빛 사랑숲 100일 동안 1가지의 소원)'이라는 특별 테마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방문객이 이곳에서 100일 동안 1가지 소원

을 정성껏 기원하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아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한다.

시 관계자는 "정읍사 달빛 사랑숲은 단순한 산책로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공간으로 기획됐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해수욕장 개장 대비 현장행정 추진

해수욕장 개장 준비상황 점검

부안군은 개장을 앞둔 관내 해수욕장을 찾아 해수욕장 상황을 점검했다. 권익현 부안군수(7월 3일~5일)와 정화영 부군수(6월 26일)는 변산, 고사포, 격포, 모항 해수욕장 등 관내 해수욕장을 방문하여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과 안전(구조)장비 등을 점검하고 개장 준비를 살펴보고 있다.

부안군 관내 5개소 해수욕장(변산, 고사포, 격포, 모항, 위도)은 오는 4일부터 8월 17일까지 45일간 운영하며, 시간은 오전9시~오후6시까지이고 폐장후에도 해수욕장 이용객 수요가 많

은 점을 고려하여 8월 31일까지 안전관리와 이용객 편의시설 등을 개방하여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93명을 선발·채용하여 주간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 취약한 야간에도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4,000점이 넘는 안전시설 장비를 해수욕장 여건 및 규모, 이용수요 등을 감안해 해수욕장별로 적정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변산해수욕장이 19일부터 8월 3일까지 야간개장함에 따라 야간 방문객이 크게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야간 이용객 편의시설, 안전관리 등 민원의 준비를 다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폭염 속에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강풍 등의 대비를 위해서도 시설물 관리 등 해수욕장 운영 전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해수욕장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안전하고 아름다운 부안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성내 어울림 체육센터 준공

고창군 성내면의 기초생활 거점 공간이 될 '어울림체육센터'가 문을 열었다.

3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성내 어울림 체육센터' 준공식을 열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오세진 성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위원장과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성내 어울림 체육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기초생활거점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 12월 첫 삽을 뜬 뒤 19개월 만에 완공됐다.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329.4㎡ 규모로 △다목적체육관△북

카페 △빨래방 △헬스장 △공유주방 △동아리실 등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었다.

다양한 방면의 기초생활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주민 활동의 핵심 시설로 이용되어 지역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세탁실이 설치돼 독거노인들을 위한 지역봉사단체의 이발 빨래 봉사가 한결 수월해졌다. 기존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이동세탁차량 지원을 받아 빨래봉사를 해왔지만 비가 오거나 날씨가 궂을 때는 이용이 어려웠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위도 깊은금 지하수저류담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4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 특성에 맞는 수자원 확보

부안군, 위도 깊은금 지하수저류담 설치사업 업무협약 체결

부안군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위도 깊은금 지하수저류담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4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안군 위도 지역의 고질적인 수자원 확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추진되며,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확보된 지하수 자원을 활용한 안정적인 물공급을 목표로 한다.

군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각 기관은 협력 체계를 강화해 사업 설계부터 공사까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며 현장 행정 지원과 지역 여건에 맞는 협조를 담당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위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김행숙 신임 복지환경국장, 현장 점검

정읍시 복지환경국장으로 새로 부임한 김행숙 국장이 주요 복지기관과 보훈단체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국장은 3일 사회복지와 소관 주요 시설과 단체들을 차례로 방문하며 복지현장의 실태를 살폈다. 이번 현장행정은 7월 1일자로 부임한 신임 국장이 민선 8기 시정 방향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인 복지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김 국장은 △정읍시사회복지협의회 △보훈회관 △정읍시자원봉사센터 △정읍지역자활센터 △참좋은 푸

드마켓 등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내용을 경청했다.

특히 각 시설이 가진 고유 기능과 운영 여건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김행숙 복지환경국장은 "복지현장은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 닿닿아 있는 만큼, 직접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